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기아 전기차 쏘울EV 국내 첫 공개 ▶8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D-30…미리 가 본 전시장 ▶10
KIA 용병 홀튼 3이닝 무실점 쾌투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695호 1판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음력 2월 12일)

표심따라 춤추는 공약 소지역주의 부추긴다

광주, KTX 광주역 진입 놓고 입장차
전남, 동·서부 갈려 상대 지역 챙기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창당 등 6·4지방선거의 변수가 많아지면서 특정 지역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의 '정치적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KTX 광주역 진입 문제가 광주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전남지사에 출마한 후보들도 지지기반이 약한 지역을 겨냥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자칫,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소지역주의 선거'로 흘러갈 우려를 낳고 있다.

후보들의 출신 지역과 정치 기반을 중심으로 광주는 구별로, 전남은 동부와 서부로 각각 나눠져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선거구도가 지역 대결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KTX놓고 후보간 이견=KTX 광주역 진입 여부가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모든 KTX를 송정역까지 진입시키고 이 중 일부를 광주역으로 운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1일 "북구와 남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광주역을 폐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도 "광주역이 폐쇄되면 북구, 동구 주민들의 집값은 반토막 날 수 있다"며 "광주역은 존치되어야 하고, KTX 광주역 진입 문제 등 세부적인 광주역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역구가 광산구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광주발전을 위해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예민한 것이어서 별도로 대안을 가지고 발표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KTX 광주역 진입 문제는 송정역 일원화와 송정역-광주역 이원화 정책과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산구와 북구를 비롯한 동구, 남구 등지의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도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상대 지역 챙기기 점입가경=전남지역 사정도 비슷하다.

동부권 출신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서부권 출신인 민주당 이낙연·김영록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 지역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동부권에 전남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시설을 우선 배치하고, 제2 도청 설치 및 일주일에 하루 이상 도지사 근무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 김영록 의원은 광양항 활성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 여수·여천·광양산단 첨단화 등의 공약을 통해 동부권 표밭을 다지고 있고, 이석형 예비후보도 동부권 메가시티센터 건립을 통해 전남 물동량을 광양항으로 유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주승용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임성), 목포~보성 고속철도, 경전선 전철화, 목포~제주 해저터널, 목포~군산 서해철도 건설 등을 통해 목포를 5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미래 고속철도 허브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KTX와 철도 등 주요 SOC 사업과 항만·공단활성화 등 광주·전남의 핵심 사업들이 후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약으로 채택되고 있어 주민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의 계획과 어긋난 공약이 나오면서 자칫, 사업 추진 자체가 늦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과거 영호남 차별 정책으로 한국 현대사의 뿌리깊은 지역감정이 고착된 것처럼, 같은 호남 내에서도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 지역이 갈라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공약이 만들어져야 하며, KTX 등 정부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은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졸업·입학식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기 졸업식과 2기 입학식에서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고속철 노선논쟁 그만"

박준영 전남지사 정략적 이용 자제 촉구

박준영 전남지사는 11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와 광주 송정~목포 구간에 대해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이 이미 정리된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인 철도는 국가의 동맥으로서 먼 미래를 보고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백년대계인 기반시설이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선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목포 노선 역시 올해 400억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정부가 약속한 2017년까지 되도록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물리적으로 2017년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타당성만 따진다면 호남에서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며, 이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제주해저터널과 관련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박 지사는 "광주가 미래를 생각해야 하며 1시간 이내의 거리에 광주송정역이 있는 만큼 광주역 진입의 타당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공항 국내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광주시를 비판했다.

그는 "영남권은 그나마 떨어져 있는 공항을 한 데 모으려고 하는데, (여기는)자기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어 피곤하다"며 "멀리 내다 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캐나다 FTA 타결

정상회담…경제협력·북핵 포기 촉구 등 합의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핵 포기 촉구 등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합동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캐나다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FTA 협상 타결과 관련, "작년에 양국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한 데 이어,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라면서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인사말을 통해 "FTA에 이어 양국 간 무역,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바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며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지금 한·캐나다 FTA 와 TPP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양쪽 시장 접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 등 양측 통상대표단은 서울에서 개최한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타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12번째로 FTA를 타결한 국가가 됐고 내년중 발효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Mercedes-Benz

학교설립 60주년(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